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학교는 순천향대에 비하면 작지만 건물은 높고 컸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며 하나같이 다 친절하고 행복해 보였음. 캐나다의 점심을 싸가지고 다니는 문화라 카페테리아 시설들이 정말 잘 되어 있었으며 전자레인지, 일회용 도구들도 비치되어 있었음.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에 스타벅스가 있어 매일 아침마다 사가지고 다녔으며, 점심이 모자르거나 안가져온 학생들을 위해 서브웨이 그리고 한 끼니를 때울수 있는 업
수업	글로벌경영대 소속 학과생들이 듣는 비즈니스영어회화랑 다르게 하나도 없었음. 보통은 한학기 1주일에 1시간 30분 2번을 듣는 수업지만 여기서는 6시간을 5일 3주동안 듣는다고 생각하면됨, 1주는 적응하고 익숙한 수업이라 재미있지만 2주차, 3주차에는 개인적인 주관이지만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너무 재미없었고 뻔한 방식 그리고 지루함이 지배적이었음. 예를 들자면 1개를 배우면 그것을 가지고 그룹토록 하는것이 너무나도 대표적이었음 1시간에 5번 그룹토록 하는것은 물론 결과물을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도 주지도 않았음. 액티비티 가는 날에는 점심시간이 1시간도 보장되지 않아 서둘러 먹었었고. 6시간 수업하는데 쉬는시간은 15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음 오전에 한번 쉬고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에는 쉬는시간이 없었음. 수업시간에 계속 영어를 쓰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많이 안되었음. 외국인들 하고 섞여서 영어를 쓰면 고쳐주거나 우리가 듣는것이 있어서 듣기에 도움이 될텐데, 한국인들 끼리 어눌한 영어를 쓰면서 하다보니까 수업 진도에 차질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답답해서 정신병이 걸릴거 같았음. 수업에서 영어를 배우는것 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현장에서 부딪히고 경험해보는게 훨씬더 가치있고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었음. 같은 국가 타 학교에 비해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았지만, 그래도 수업방면에서는 너무 아닌거 같았음.
Activity	아쿠아리움, 다수의 관광지, 컬링, 등 매주 1-2개의 액티비티가 있었고, 추가비용은 일체 없었음. 수업듣는거 보다 훨씬 시간도 잘가고 재미있었으며, 액티비티가 끝난 후 각자 흩어져서 노는게 대부분이 었음.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는 매일 영상권을 유지했으며 패딩은 안입었고 유니클로 경량패딩 혹은 바람막이, 여러겹을 껴입기만 해도 쌀쌀했지만 견딜만 했음. 날씨는 정말로 환상적이었으며, 우기라서 구름이 많이 껴옴. 우기 시즌에 파견을 간다면 방수용 바람막이를 가져간다면 환상적일듯.
안전	매우안전 또 안전 한국만큼 안전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어느정도 경계는 필요함.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0) 외부 숙소() 기타() 60대 노부부 그리고 26살 딸 1명 이였지만, 딸하고는 잘 안마주 쳤으며 우리집은 자유방임 주의였음. 제한적인거 한 개도 없었지만 그래도 예의상 저녁 9시 이전에는 들어갔었음. 학교와 거리는 대중교통 환승 1번에 10분 거리였으며, 집근처 스타벅스 있어서 과제나 마실거는 거기를 이용했음. 외부는 벽돌이나 내부는 목재로 되어있어서 방음이 하나도 안됨.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0) 기타() 아침식사 : 집 점심식사 : 가져옴 저녁식사 : 외부식당 3주동안 저녁을 집에서 2번밖에 안먹었으며, 거의 나가서 해결했음. 워낙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인지라 나가서 놀고 먹고 하는게 더 즐거웠고 홈스테이는 거의 잠만자는 곳이었음.... 그래도 마지막날과 그전에 두 번정도 같이 식사를 하였으며, 후회는 하지 않음.
교통	구글맵에 주소 치면 가는 방법 상세히 잘 알려주며 하란대로만 하면됨. 나중에 2주차 3주차 되면 구글맵 따윈 안보고 버스 번호보고 타고 주변 건물보고 내리고 하면서 거의 현지인이 다 됨. 그만큼 벤쿠버 교통이 정말 간단하고 쉬우며 어려울게 없음. 교통카드는 학교에서 일괄 지급 해주며 해당기간 무료 카드 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미친듯이 놀러다니길 추천함.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항공료	1,600,000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23,000	사전 납부(연령에 따라 금액 상이)
식비	500,000	저녁 외식 및 마트 애용
쇼핑	1,000,000	아울렛 코치, 폴로 너무쌘
합계	3,123,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하란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한게 없습니다.
생활적인것에 대해 알려주자면.

1. 캐리어는 무조건 넉넉한거 2개 가져가십쇼

아울렛이 지하철타고 갈 거리로 가깝기 때문에 자주 들리실겁니다.

코치 브랜드가 정말로 저렴합니다. 40만원 가방 > 10만원 / 8만원 파우치 > 3만원 등
가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눌러담으면 구겨져 선물 주고선 욕먹는 꼴이 되지 않도록
여유있는 공간을 유지해서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폴로 브랜드도 정말 저렴합니다 8만원 스웨터 > 3만 5천원

3만원 라운드 반팔티 > 1만 2천원

겨울 파견이시라면 캐나다구스도 유명합니다 (노드스트럼 백화점 3층)

한국에서 110만원 짜리 패딩도 백화점에서 90만원대 하며 한국에서 사이즈 색 다 품질
인 상황에서도 백화점은 타점 배송을 통해 고객들 손에 쥐어줍니다 가격도 한국보다 저
렴 재고 빵빵 추천합니다.

2. 잔고는 어느정도 남겨두십쇼 > 벤쿠버 공항 면세점을 위해^^

화장품 맥 브랜드도 한국보다 1만원 저렴합니다 (캐나다 시중에서 사면 텍스 붙음, 단
면세점 제외)

에스티로더 브랜드도 엄청 저렴합니다. 한국에서 기본 4만원 이상인데 현지에서는 3만원
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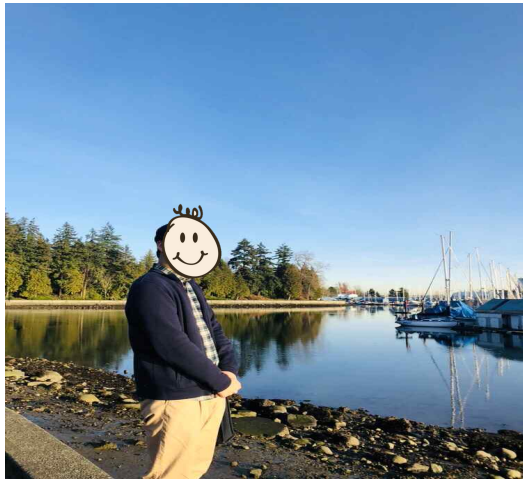
그리고 에르메스 향수도 한국에서는 15ML 4피스 16만원인데 여기서는

모든 향수 15ML를 개당 3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개당 구매 가능합니다. 면세점도 정말
안살래야 안살수가 없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원래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라 랑가라컬리지 6개월 과정을 지원을 할려 했지만 요번 수업을 듣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수업을 통한 영어 학습은 제게 맞지 않는 방식이며 저에게는 듣고 말하는 쌍방향적인 활동을 원하는데 수업이란건 교수를 통한 일방적 활동이기 때문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다만 밴쿠버에 대한 좋은 여건과 환경들이 제게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서, 저에게 맞는 활동적인 학습인 워킹홀리데이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침 복귀를 했을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기간이라 여권 갱신을 하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3주동안 영어를 배우기 보다는 내게 맞는 영어 학습법이 이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글로벌한 인재인지 등 다른 방면의 모습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파견하시는 분들은 익히 소감문을 통해 각오하시고 설램을 안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스탠리 파크에서 (자전거도로, 도보 있음)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



랑가라컬리지 소속이자 순천향대학교 기
파견자인 Danny



컬링



그랜빌 아일랜드 입구에서(엑티비티)



마지막 집가기전 쇼핑 한것들.